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부모와 대화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 간 비교연구

박상문¹, 김기중¹, 김태철², 현병환^{1*}
¹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²한국탄소융합기술원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parent conversation on career maturi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satisfaction and non-satisfaction group

Sang-Moon Park¹, Gi-Joong Kim¹, Thai-Churl Kim², Byung-Hwan Hyun^{1*}

¹Departmen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²Korea Institute of Carbon Convergence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 자아효능감과 진로성숙도 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과 만족하지 않은 두 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학교와 선생님이 학교생활에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려는 노력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을 위해 학교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8년 초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 조사 Dat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아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은 부모와 대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 빈도와 내용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효능감과 부모와 대화 변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않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조절적 작용(Pairwise T-Test -5.439***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conversations with parents on career maturity. We consider how to instruct students in school life, efforts to increas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implications for career education in schools to evaluate students' school life.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II) survey data conducted in early 2018 was used. Study results found self-effic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areer maturity an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nversations with parents. The frequency and content of conversation with parent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areer maturity.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onversations with parents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has a significant regulatory effect between the two groups who were satisfied with school life and those who were not.

Keywords :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Talk With Parent, High School Life, Career Education, Career

*Corresponding Author : Byung-Hwan Hyun(Propessor, Dept of Business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email: hyunnv@gmail.com

Received August 19,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Revised September 2,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취지로 제정된 진로교육법이 시행(2015. 12. 23. 시행)된 지 5년이 되어가고 있다[1]. 특히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 제공 등 가까운 미래에 전공 분야를 결정하거나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2002년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시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등 국가 교육과정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으며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2011년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내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은 2012년 88.7%에서 2018년에는 95.3%까지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 내 진로교육을 위한 공간 설치 여부가 2012년 45.0%에서 2018년에는 75.4%로 확대되는 등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인력 및 Infra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37.2%에서 2018년 46.9%로 증가한 고등학교 내 진로와 직업 수업 교과 편성 및 운영을 보아도 진로교육이 교육현장에서 활성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단기적으로 진로는 취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구직난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는 개인이 경험해야 할 직업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앞으로 직업이 세분화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직업(=창직)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직업적 발달로 인해 개인은 다수의 직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 경력곡선은 한 직업에서 평생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는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5년 내외의 주기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3].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진학, 취업, 창업 등 개인의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는 한 사람의 전 생애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과 동시에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4자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

제로 청소년기를 벗어나 사회에 나가서도 진로발달이 미진해서 성인이가 되어야 진로에 혼란을 겪고, 진로를 결정 못 하거나 진로를 바꾸어서 취업이 늦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4].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느끼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5], 자기효능감과 통용되는 용어이다. 진로발달 이론에서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6]가 있듯이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는 진로교육을 하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진학과 진로정보에 관심이 높다. 교육기관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생과 부모가 참여하는 캠프형 진로교육을 개최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학생의 진로 결정에 부모의 역할(영향)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진로와 관련 대화의 내용은 자녀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내용과 빈도에 따라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집단과 만족하지 않는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느끼는 능력”으로 자기효능감과 통용되는 용어이고, 이것은 진로발달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진로발달에 적용된 자아효능감은 Betz와 Hackett(1981)에 의해 처음 적용되었다.

주로 자아효능감은 진로성숙도와 관련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는 만큼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자아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아효능감은 진로, 태도, 성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업 동기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의 매개요인

으로도 역할을 한다[7]. 그리고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진로 결정 자아효능감을 밝힌 바 있다[8].

진로 자아효능감은 Betz와 Hackett(1981)가 Bandura의 자아효능감 이론을 진로 분야에 도입한 개념으로 진로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성공에 대한 높은 믿음과, 진로 결정을 위해 필요한 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진로발달과정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9].

Betz와 Hackett(1981)는 자아효능감 개념을 진로영역에 적용하여,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성공적인 진로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개인의 진로 자아효능감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여 진로 전반에 자아효능감을 계량화하였다.

양은희(2018)는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요인 및 심리 사회적 변인과 진로준비 행동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 자아효능감을 개인의 진로선택 및 결정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낼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 정의하였고, 유은경(201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효능감은 진로성숙도의 독립, 확신, 결정, 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목적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매개요인으로 또는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는 있으나 선행연구의 결과가 각기 달라 절대적이지 않기에 다양한 변인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는 개인의 진로 발달적 성과 측정 변수로서 다수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이다. 진로성숙도는 Super(1957)가 직업성숙도(vocational maturity)라는 용어로 처음 소개한 이후 진로성숙도라는 상위개념으로 발전 정착되었다고 한다[10].

Super(1957)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이 속한 발달단계에 따라 이루어야 할 직업적 과업(vocational task)을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진로성숙을 직업선택의 성향,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및 계획, 직업 선호의 일관성, 개인적 특성의 구체화, 직업적 선호의 분별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

다[10, 11].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 정도”로 제시하고, 이를 진로선택 태도(career choice attitudes)와 진로선택 능력(career choice competences)으로 구분하였다[10]. 태도적 측면은 진로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향 및 태도로서 진로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정향성, 타협성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능력 측면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하였는가에 관심을 두는 속성으로 여기에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 등을 포함한다[10].

진로성숙도는 발달단계에서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이에 맞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12]. 즉,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본인의 연령대에 맞게 진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진로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발달 정도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13]. 개인의 진로준비 행동이 그 연령층의 개인에게 기대되는 진로 행동과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설명한다[14]. 고등학교 단계에는 중학교까지 형성된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고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Design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는 진로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15]. 이러한 시기적 특성에서 보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생이 진로에 대한 능력 측면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생각과 태도를 측정한 14개 문항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계획 등에 대해 얼마나 수행 능력 및 준비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하고 있어 이를 고등학생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그동안 국내외 많은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진로발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은 크게 학생 개인, 가정 및 학교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 관련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의 심리적 특성 등이 있다[16].

2.3 진로교육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고등학교 시기는 삶의 경험 속에서 지속적인 자아 탐색, 직업정보 검색 및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선택 가능한 진로 대안들을 알아가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아가는 탐색기(exploration)로 설명된다

[17]. 즉, 고등학교 학생은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펼쳐나갈 미래와 진로에 대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 시기로서, 진로교육은 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이 추상적인 진로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진로 탐색 및 준비가 구체화 되고,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의 초석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는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목표를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고 제시한다[2]. 이러한 목표에 비추어볼 때 학교 진로교육 활동이 실제로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교육 활동이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다.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 관련 경험 등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일수록[18, 19]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진로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인식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20, 21]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진로교육 활동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고등학생 대상 선행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유형별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을 비교한 한정현·조현희(2018) 연구에서는 진로교육활동 만족도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단 것을 보여주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희진 외(2018)연구는 진로상담 여부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가 아닌 성적에 맞추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일반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대학 진학 지도 또는 진학상담이라 불릴 정도로 대학입학에 중점을 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생의 진로발달 관점에서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청소년의 진로발달에서 부모 역할

아동 청소년기에 부모의 존재와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아동기에는 부모에게 기대는 빈도가 높지만, 청소년기에는 친구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간다[22]. 하지만 진로와 관련해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가 이루어질 때 진로정체감이 형성되고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직업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23].

청소년의 진로발달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와 가족이라고 하였으며 교육적인 발달과 진로 발달 영역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24].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부모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부모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와 비교해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준비 행동에 상대적으로 낮은 연관성을 보이기도 하였다[25]. 김성아(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은 자아존중감, 가족갈등, 부모교육참여, 부모 감독, 또래 애착, 교사유대감, 지역 사회활동 참여 등 여러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모든 관계에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가족 요인은 나머지 요인에 의해 영향력을 잃는다고 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요인을 부모와의 활동과 부모와의 대화로 나누어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 요인이 진로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자아효능감(5가지 요인)이 진로성숙도(14가지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더불어 진로 자아효능감(5가지 요인)과 부모와 대화(5가지 요인)가 진로성숙도(14가지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교생활을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 간의 다중집단비교를 통해 이들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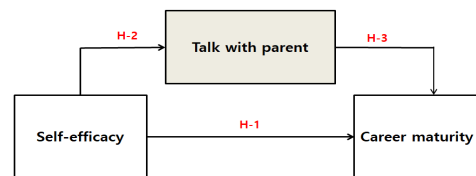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가설1 : 학생의 자아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에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이 자아효능감을 실증분석한 유준상과 서우석(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 학생의 자아효능감은 부모와 대화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부모와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자아효능감이 부모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31, 32]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와 대화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분석에서 부모와 대화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6]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 학교생활의 만족·불만족 집단 간의 자아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진로성숙도, 자아효능감, 부모와 대화 등이다. 이 변수들은 각각 5~6개의 측정 항목을 사용하여 변수로 설정하고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Variables	Item	References
Career Maturity	1. Recognize the cases of people who have pioneered new jobs and career	Han (1997)
	2. Awareness of changes in the world of work and work	
	3. Explain the job ethics of the desired job	
	4. Explain job prejudices and stereotypes	Yoon (2009)
	5. Search for information on desired university and major department	
	6. Search for information of wanted job	Jung (2010)
	7. Possible to judge whether information is reliable among job information	
	8. Acquisition of required academic background and qualification information for the desired job	

	9. Long-term career plan	
	10. Plan for career after graduation	
	11. Recognition of important criteria for career selection	
	12. Overcoming difficulties in career preparation	
Self-efficacy	1. know what I'm good at	Cha (1996) Lee (2001)
	2. know what I like	
	3 Know what's important to life	
	4. Decide what you need to decide	
	5. You can do what you planned	
Talk with parents	1. School life (friend, teacher relationship)	Jeon, Jung (2018)
	2. interest and aptitude	
	3. Future job (dream, career hope)	
	4. Select School and Department	
	5. Values of life	

4. 실증분석

4.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II에서 실시한 2018년 3월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총 9,51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과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4.2 연구결과

4.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Item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School location	Seoul	1,386	15.1	Chungbuk	374	4.1
	Busan	569	6.2	Chungnam	373	4.1
	Daegu	512	5.6	Jeonbuk	425	4.6
	Incheon	569	6.2	Jeonnam	398	4.3
	Gwangju	341	3.7	Kyungbuk	494	5.4
	Daejeon	301	3.3	Kyungnam	604	6.6
	Ulsan	254	2.8	Cheju	142	1.6
	Gyunggi	2,072	22.6	Sejong	49	.5
	Kangwon	278	3.0	Others	16	.2
School type	General	4,799	52.4	Foreign	205	2.2
	Autonomous	482	5.3	Art	210	2.3

	Special	2,184	23.9	Physical	219	2.4
	Science	214	2.3	Meister	844	9.2
Residence	Special	1,385	15.1	City	3,831	41.8
	Metropolitan	2,544	27.8	Town	1,397	15.3
Career hope	High school	1,742	19.0	Master	583	6.4
	2~3year	1,546	16.9	Doctor	408	4.5
	Bachelor	4,853	53.0	None	25	.3
Job decision	Yes	5,027	54.9	No	4,130	45.1
Father education	Illiterate	28	.3	Bachelor	2,881	31.5
	Elementary middle	368	4.0	Master	358	3.9
	High school	3,994	43.6	Doctor	152	1.7
	2~3year	701	7.7	Other	502	7.4
Father employment	Regular	4,759	52.0	Employer	705	7.7
	Irregular	339	3.7	Subordinary	114	1.2
	Self-employed	2,095	22.9	Unpaid	20	.2
School life	Satisfaction	6,605	69.4	Dissatisfaction	2,468	25.9
	Other	444	4.7			
Total	n	9,517	100	n	9,517	100

4.2.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은 Cronbach's α 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7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26]. 확인적요인분석(CFA)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chi^2=13618.28(df=249, p=.000)$, $CMIN/df=54.69$, $RMR=.035$, $GFI=.865$, $AGFI=.837$, $RMSEA=.077$, $TLI=.923$, $CFI=.931$ 로 도출되었다. $GFI=0.865(\geq .80)$, $AGFI=0.837(\geq 0.80)$ 이상, $CFI=0.931(\geq 0.90)$, $NFI=0.930(\geq 0.90)$ 등의 적합도는 권고지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RMR=0.035(\leq 0.05)$, $RMSEA=0.077(\leq 0.08)$ 등으로 좋은 모형으로 판단되어 변수 간의 관계 추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27]. 또한,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 판단을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값(AVE) 계산 결과, 수용 가능한 수준(개념 신뢰도 : 0.7 이상, 분산 추출값 : 0.5 이상)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28](Table 3 참조).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를 비교 확인한바, Table 4와 같이 각 차원의 AVE의 최솟값(부모와의 대화= .625)이 다른 변인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모두 넘고 있어 판별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Table 3. Results of CFA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Factor	Variable measured	Std. loading	t value	Std. error	AVE	C.R.	Cronbach α
Self-efficacy	Know you're good at	0.777	-	0.297	.628	.894	.857
	Know what you like	0.744	69.686***	0.321			
	Know what's important to life	0.739	69.130***	0.301			
	Decide what you need to decide	0.725	67.774***	0.359			
	Can do what you planned	0.710	66.282***	0.342			
Talk with parents	School life (friend, teacher relationship)	0.735	-	0.644	.625	.892	.920
	My interest and aptitude	0.908	88.654***	0.241			
	My future job (dream, career hope)	0.913	89.122***	0.223			
	Select School and Department	0.847	82.373***	0.397			
	Values of life	0.780	75.257***	0.603			
Career Maturity	Recog. of pioneering a new job or career	0.786	-	0.518	.648	.962	.971
	Aware of change in the world of work and work	0.807	87.627***	0.455			
	Explain the job ethics of the desired job	0.83	91.049***	0.43			
	Explain job prejudices and stereotypes	0.824	90.097***	0.434			
	Description of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0.782	84.04***	0.529			
	Desired university, major department information search	0.848	93.715***	0.368			
	Search for information on the desired job	0.863	95.949***	0.324			
	Can judge reliable job information	0.843	92.855***	0.363			
	Acquis. of required academic background & qualification information for the desired job	0.871	97.196***	0.308			
	Long-term career plan	0.867	96.558***	0.32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0.856	94.865***	0.364			
	Knowing how to prepare for a career	0.877	98.150***	0.298			
Recognition of career selection criteria	0.859	95.296***	0.334				
Overcoming career preparation difficulties	0.856	94.908***	0.319				

$\chi^2=13618.280$, $df=249$ $p=.000$, $GFI=.865$, $AGFI=.837$, $NFI=.930$, $CFI=.931$, $NFI=0.930$, $RMR=.035$, $RMSEA=.077$

*** $p < 0.001$.

CR(Construct Reliability) = $(\Sigma \text{Standardized estimate})^2 / \{(\Sigma \text{Standardized estimate})^2 + \Sigma \text{Measurement error}\}$.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 $\Sigma (\text{Standardized estimate})^2 / \{(\Sigma \text{Standardized estimate})^2 + \Sigma \text{Measurement error}\}$.

Table 4. Analysis of discriminant validity between construction concepts

Item	Self-efficacy	Talk with parents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627		
Talk with parents	.224** (.05)	.625	
Career Maturity	.218** (.047)	.137** (.018)	.962

**p<.01, ()Squared valu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Diagonal line means AVE value

4.2.3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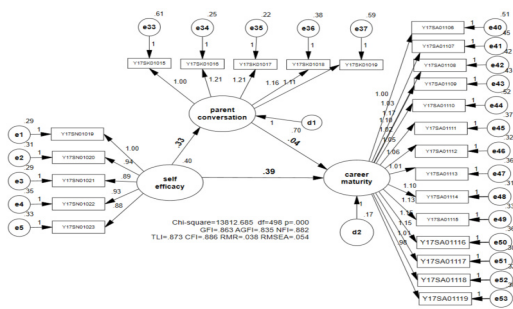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효능감을 외생변수로 하고 부모와의 대화와 진로성숙도를 내생변수로 하는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chi^2=13,618.280(df=498, p=.000)$, $CMIN/df=27.34$, $GFI=.863 (>.80)$, $AGFI=.874 (>.80)$, $TLI=.873 (>.80)$, $CFI=.886 (>.80)$, $RMR=.038 (<.05)$, $RMSEA=.054 (<.08)$ 으로 도출되어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는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27].

4.2.4 연구가설 검증 및 검증 결과

Table 5.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H	Group	Path	Estimate	S.E.	t value	Result
H1	Satis	S_efficacy ⇒ C_Maturity	.392	.013	30.118	Accepted
	Dissatis	S_efficacy ⇒ C_Maturity	.277	.017	16.677	pted
H2	Satis	S_efficacy ⇒ T_with parents	.332	.019	17.359	Accepted
	Dissatis	S_efficacy ⇒ T_with parents	.315	.027	11.568	pted
H3	Satis	T_with parents ⇒ C_Maturity	.044	.007	6.245	Accepted
	Dissatis	T_with parents ⇒ C_Maturity	.036	.010	3.522	pted
H4	Satis	S_efficacy ⇒ C_Maturity Modul				Accepted
	Dissatis	S_efficacy ⇒ C_Maturity ating effect				pted

(1)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H1은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성숙도는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만족 t=30.118 : 불만족 t=16.677,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2) 자아효능감이 부모와 대화에 미치는 영향

H2는 자아효능감이 부모와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함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성숙도는 부모와 대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만족 t=17.359 : 불만족 t=11.568,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3) 부모와 대화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

H3은 학생과 부모의 대화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함인데 부모와 대화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만족 t=6.245 : 불만족 t=3.522,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4) 학교생활 만족 집단과 만족하지 않는 집단과의 비교연구

본 연구의 핵심논의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 집단 간의 잠재변인 간의 영향의 정도나 차이의 가설 H4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 Amos

Table 6. Multi-group analysis between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group analysis of control effect

H	Group	Path	Estimate	S.E.	C.R.	Label	Pairwise t-test
	Satis	S_efficacy ⇒ C_Maturity	.392	.013	30.118	par_24	-5.439 ***
	Dissatis	S_efficacy ⇒ C_Maturity	.277	.017	16.677	par_48	
H4	Satis	S_efficacy ⇒ T_with parents	.332	.019	17.359	par_22	-5.09
	Dissatis	S_efficacy ⇒ T_with parents	.315	.027	11.568	par_46	
	Satis	T_with parents ⇒ C_Maturity	.044	.007	6.245	par_23	-6.56
	Dissatis	T_with parents ⇒ C_Maturity	.036	.010	3.522	par_47	

* note 1.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latent variables, Pairwise t-test method was adopted.
p<.05, *p<.01, ****p<.001

22.0을 사용하여 다중집단분석 방법인 대응 모수 비교를 통해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Table 6과 같이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par_24 : par_48)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Pairwise t-value = -5.439^{***}) 조절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연구의 한계

5.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 간에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최초의 실증적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진로성숙도는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9]의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효능감이 부모와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진로성숙도는 부모와 대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30, 31]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과 부모의 대화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가설에서 부모와 대화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32]를 지지하고 있다.

넷째, 학교생활에 만족 집단과 만족하지 못하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더불어 진로성숙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로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 행정, 선생님, 진로교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진로는 학생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가치관 형성이 가장 왕성한 청년기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교육 및 진로성숙도 제고에 노력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진로와 관련 학생과 부모의 대화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이고, 이번 연구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 간의 유의미한 조절적 효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학교생활을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한 집단 간의 다중집단비교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시도이다. 하지만 본 연구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두 집단 간의 표본이 만족(n=6,605), 불만족(n=2,468) 집단 간의 표본의 수의 차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실증분석의 진행에 있어 표본 간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의 진로성숙도가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함에 따라 학교유형별 자아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과 부모와의 대화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Career Education Act", 2015.
- [2] J. H. Kim,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nd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 Comparison in Income Class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2(1), pp.75-109, 2019.
- [3] Lynda Gratton, "The future of work", Seoul, Institute of thought, 2012.
- [4]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II", 2019.
- [5]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pp.191-215, 1977.
- [6] H. Y. Je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 University, 2018.
- [7] S. S. Kim, J. E. Kim, M. O. Kim,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Self-esteem,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9), pp.99-117,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9.99>
- [8] Y. N. Lee, "A Study on High-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Career a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ir Career Maturity",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2019.
- [9] J. U. Kim, S. S.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28, 2013.
- [10] S. M. Chang, D. S. Lim, B. K. Song,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reer-Learning Inspection Tool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0.
- [11] J. B. Le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 [12] M. L. Savickas, "Career maturity: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4): pp.222 ~ 231, 1984
DOI: <https://doi.org/10.1002/j.2164-585X.1984.tb01585.x>
- [13] H. J. Han, J. H. Yang, H. Y. Kim, Y. M. Kim, "Analysis of affecting career maturity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24(2), pp.381-398, 2018.
DOI: <https://doi.org/10.36907/krivet.2018.21.3.1>
- [14] D. E. Super,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1957.
- [15] E. L. Herr, S. H. Cramer,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 (5th edition), New York: Harper Collins, 1996.
- [16] S. H. Bae, "The Effects of School Type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from Meister, Vocational, and General High School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0(1), pp.525-548, 2012.
- [17]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pp.282-298, 1980.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0\)90056-1](https://doi.org/10.1016/0001-8791(80)90056-1)
- [18] S. R. Kim, Y. J. Hwang., "The Influenc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and Program Evalu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2), pp.167-190, 2016.
- [19] +H. J. Lim, J. E. Han, J. S. Kim, H. Y. Jeon, "The Concurrent and Lagged Effects of Adolescents' Career Experiences and Parental Support on the Longitudinal Change of Career Matur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5), pp.289-306, 2016.
DOI: <https://doi.org/10.15703/kjc.17.5.201610.289>
- [20] H. J. Jang,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Career Education Activities on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Research*, 31(1), pp.21-42, 2018.
- [21] J. H. Han, H. H. Cho, "Analysis of Ecological System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by High School Typ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1(3), pp.1-38, 2018.
DOI: <https://doi.org/10.36907/krivet.2018.21.3.1>
- [22] M. Riera, *Staying connected to your teenager*, Boston: Da Capo Press, 2017.
- [23] E. T. Lee, J. H. Choi,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relationship, Career conversation and Career Decision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1), pp.47-66, 2017.
- [24] J. H. Lee, K. S. Lee, "The Effects of Parent Support o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6(1), pp.143-153, 2018.
- [25] J. W. Cha, H.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Environment, Peer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6(3), pp.53-67, 2014.
- [26] G. S. Kim,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Hannarae Academy, 2010.
- [27] W. P. Kim, "Statistical analysis rewritten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ise in company, 2017.
- [28] B. R. Ba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7.0", Seoul, Cheongram, 2016.
- [29] J. S. You, W. S. Seo, "A Meta-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pp.165-183, 2013.
- [30] B. Y. Khu, "The Mediation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parent, teacher, and peer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3), pp.347-373, 2012.
- [31] E. J. Cho, "The Mediation Effects of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pp.299-322, 2008.
- [32] H. J. Jeon, H. W. Chung,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school and student variables of middle school students", *Youth Research in Korea*, 29(3), pp.213-240, 2018.
DOI: <https://doi.org/10.14816/sky.2018.29.3.213>

박 상 문(Sang-Moon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학사)
- 2011년 8월 : 목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건설팅학과 (박사과정)
- 2013년 3월 ~ 현재 : 에스엠씨앤씨 대표 컨설턴트

<관심분야>

경영전략, 전략기획, 인사조직, HRD, 창업/창직

현 병 환(Byung-Hwan Hyun)

[정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건설팅학과(교수)
- 2019년 1월 ~ 현재 :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 2006년 1월 ~ 2015년 12월 : UST 기술경영정책학 교수
- 2004년 1월 ~ 2013년 12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연구센터장

<관심분야>

기술경영, R&D기획, 전략기획, 기술사업화

김 기 중(Gi-Joong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명지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건설팅학과 (박사과정)
- 2015년 2월 ~ 현재 : (주)KMC경영연구원 상임컨설턴트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29기)

<관심분야>

경영전략, 품질경영, 마케팅, 기술경영

김 태 철(Thai-Churl Kim)

[정회원]



- 2004년 8월 : 전북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산업공학과(석사)
- 2020년 2월 :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박사)
- 2013년 5월 ~ 2018년 1월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장
- 2005년 ~ 현재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기술경영, 창업/창직, 리더십, 기업가정신